

샬롬! 예루살렘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끝자락에서 문안드립니다. 지난 한 달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개인적으로 되돌아볼 때 지난 5월은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듯하여 감사했고 또 멀리서나마 지켜보며 안도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가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져서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현장에 살다보면 가장 불편하고 또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건강체크와 치료입니다. 3주간을 하혈하면서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했던 속사정, 그렇다고 편히 한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저마다의 사정과 형편이 있음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검사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담희와 단아의 충치를 치료를 위해 현지 아랍병원을 찾았습니다. 담희는 5개, 단아는 6개의 충치를 치료했습니다. 개수에서 말해주듯이 제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마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한달 이곳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 코리엘 사역 이야기

계속 코리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번 기도편지에서는 갈릴리 지역에 코리엘 사역을 위한 처소를 소개하며 곧 본격적인 사역이 전개될 것을 기대감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성사될 즈음에 집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리면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 일에 더해져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역자의 갑작스런 건강 악화가 있어 잠시 처소 알아보는 것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펍찬 가슴을 안고 기대에 부풀어 갈릴리 사역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려 다소 실망하기도 했지만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또다른 기회와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이 잘 준비되고 또 주변에 돕는 자들과 귀한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어느 아랍마을 이야기

지난 27일(토요일) 부터 이곳은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라마단을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안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수복한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방문해 다소 민감한 정치적 이슈들을 다뤄 한동안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이 즈음하여 저희 팀은 60번 도로(죽장길) 선상에 있는 한 아랍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작지 않은 마을이었고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유독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형제(Ma'en)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를 통해 이 마을에 긴장감이 감도는 그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매일 같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장하고 들어와 마을을 감시하고 또 시위대 진압이나 작전을 전개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거리에 유독 여러 사람들의 얼굴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희생된 마을 사람들로 그들을 추모하는 그림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이 마을 사람들 가운데 20명 가량이 이미 시위 진압을 통해 벌어진 불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형제가 저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12시가 되면 군인들이 마을로 들어올 테니 그 전에 이 마을에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더군요. 해서 저희들은 급하게 빠져 나왔습니다. 마을을 빠져 나오면서 함께 간 동역자들과 함께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또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방문한 이곳 아랍 마을 이야기이지만 주변으로 아랍 마을과 유대인 마을 안에 매일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두 민족간 갈등과 대립이 오늘도 수많은 슬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저희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위로를 받고 치유 받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타마르 이야기

지난 기도제목에서 말씀 드린대로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여리고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모처럼의 시간을 통하여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봐서 저희들도 기뻐했습니다. 물놀이가 얼마나 좋았던지 좀처럼 밖에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물 속에 있는 아이들을 보며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기도해주신 덕분에 즐거운 시간 갖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0월 달쯤에 베두인 마을 '하닌'과 아버지 '이브라힘'을 데리고 요르단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닌'은 머리가 총명하고 배움에도 열의가 있는 아이입니다. 베두인 여자 아이로서 흔치 않게 자신의 꿈이 있고 기회가 되면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가능성과 기회를 아버지인 이브라힘과 당사자인 하닌에게 보여주기 위해 요르단 대학교를 방문하려 합니다. 타마르 프로젝트에 어찌면 첫 번째 대학 진학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담희, 단아 충치치료



침례교 가족모임



G.TJ 사역 현장



어느 아랍마을 담벼락에...



타마르 소풍(여리고) 1



타마르 소풍(여리고) 2

「 기도제목 」 “*Flowers will bloom where we planted together*” – David J. JUNG

1. 보내신 자리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2. 요압 아저씨과 마아얀 가정이 예수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3. 갈릴리에 전개될 코리엘 사역을 위한 준비와 진행 그리고 적합한 처소를 주시도록
4. 현지 I*M 사역자들과 좋은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불어 주어진 기회 안에서 안정적인 Status(비자문제)가 마련 되도록
5. 라마단 기간에 두 민족간의 대립과 다툼으로 더 이상의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 단아, 도하, 다온)
- 외환(하나)은행: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코리엘 프로젝트
- 외환(하나)은행: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주 소 :
Eli Tavin 22/10, Jerusalem 9770001, Israel.
JAESUK JUNG

※ 연락처 :
■ 휴대폰: +972-(0)58-6623513 (다비드)
+972-(0)58-4623514 (하다스)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

이스라엘로 보내는 소포는 우체국 일반 소포(예제:CP123456789KR)만 가능합니다. EMS는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